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종운 · 서영환 · 강버들[†] · 전은순
(부경대학교)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in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Jong-Un PARK · Young-Hwan SEO · Beo-Deul KANG[†] · Eun-Sun JE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for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And it will help improving the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456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Analysis methods includes Frequency Analysis, One way ANOVA,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and data was analyzed by PASW Statistics 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ere generally positive. Second, The effects of the grade, the major and the school of students on self-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higher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students were, the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was. Lastl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were valued positive.

Key words : Career decision level, Self-efficacy, Social support,

I. 서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의 자아인식과 더불어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계획을 통해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라 할 수 있다(Jang Dae-Un, etc, 1996).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와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Youth statistics,

2011). 이것을 보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진로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전국 1,5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갈등,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3). 따라서 진로결정은 오늘날 청소년기의 주된 관심사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7844, badlle@hanmail.net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11)'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은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수·해양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교육목표를 '수산 해운 분야 산업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하는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신 해양 시대에 새롭게 전개될 미래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수산 해운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11)'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수·해양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전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에 대한 파악이나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중학교 성적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수산업에 취업한 수·해양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의 30% 이상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eo Jae-Phil, 2011).

최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취업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편중되거나, 진로 결정을 하고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그에 알맞은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진로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양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내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진로(career)란,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수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로(Hoyt, 1974), 개인의 생애직업발달과 그 과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이다(Kim Chung-Gi, 1986). F. Parsons는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동시에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Koh Hyang-Ja, 1992).

진로선택에 관한 문제는 학생이 생활을 하면서 내적요인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내적 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직업 흥미를 개발하는데 있어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이에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는 도구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을 제작하여 진로 전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Lee Hyun-Hee, 2008). 또한 진로결정의 외적 요인으로

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가 개인의 진로 발달과 관련이 있다(Chope, 2001). 그리고 정보지지와 존중지지는 진로결정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용기를 주며, 진로발달능력에 확신을 갖게 한다(Manzi & Glasscock, 2001). 한편, 문화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주변 사람인 가족과 친구, 교사의 역할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다(Lee Young-Sun, 1999). 한편, Jin Eun-Ah (2007)이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 미결정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식 조사를 위하여 모집단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로 정하고, 수·해양계 고등학교 4개교(부산, 인천, 경남, 포항)를 임의 선정하여 무선표집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Table 1> Students' Distribution on Background Variables

Division		N(%)	Total
grade	1 st Grade	148(32.5)	456 (100%)
	2 nd Grade	216(47.4)	
	3 rd Grade	92(20.2)	
major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133(29.2)	
	Marine Engine	156(34.2)	
	Food Processing	52(11.4)	
	Refrigeration	69(15.1)	
	Communication	46(10.1)	
school	Gyeongnam ○ H.S	78(17.1)	
	Busan ○ H.S	112(24.6)	
	Inchen ○ H.S	137(30.0)	
	Pohang ○ H.S	129(28.3)	

설문 조사는 570부를 배부하여 516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60부를 제외하고

456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측정 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ha & Kim (199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예비척도를 김이영이 수정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사전검토는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의 면담과 예비 설문 실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수정을 위한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하위척도 아래 총 12개의 Likert식 5점 척도 문항들로 재구성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재수정·보완하였다. 1번~9번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이고, 10번~12번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 제작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779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self-efficacy

division	# of Questions	Cronbach α
self control efficacy	1~6	.792
confidence	7~9	.607
task difficult preference	10~12	.602
total		.779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 사회적 지지 척도’(Kim Ji-Hae, 1998)를 부모, 교사, 친구의 하위척도로 새롭게 범주화하여 각 체계가 제공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사전 검토는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수정을 위한 의견을 받아들여 총 15개의 Likert식 5점 척도 문항들로 수정·보완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회적지지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 조사를 거

처 수정 제작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872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social support

division	# of Questions	Cronbach α
parent support	1~5	.788
teacher support	6~10	.827
friend support	11~15	.880
total		.872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의 진로결정척도(ACDM)의 Part D 전공선택 확신검사(ACDM - Major)와 Part C 직업선택 확신검사를 Koh(1992)가 변안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전문가와 토론과정을 거쳐 두 검사의 문항 내용을 종합하여 수·해양계 고등학생을 고려하여 총 14개의 Likert식 5점 척도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3, 7번을 제외한 11개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 제작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856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career decision level

division	# of Questions	Cronbach α
career decision level	1 - 14	.856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경우 Scheffe 방식에 따라 사후 검증을 수행하

였으며, 산출된 통계량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가. 자기효능감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M=3.36), 과제난이도 선호(M=3.18), 자신감(M=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3.26인 것으로 보아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보통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관찰이나 자기 판단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학생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elf-efficacy level N=456

division	M	SD
self control efficacy	3.36	.57
confidence	3.14	.73
task difficult preference	3.18	.69
average	3.26	.48

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M=3.51), 친구의 지지(M=3.36), 교사의 지지(M=3.22) 순으로 지지를 받으며, 전체 평균은 3.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으며, 교사의 지지보다 또래 집단인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6> social support level N=456

division	M	SD
parent support	3.51	.69
teacher support	3.22	.65
friend support	3.36	.74
average	3.36	.54

다. 진로결정수준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수준은 평균 3.23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7> career decision level N=456

division	M	SD
career decision level	3.23	.61

라. 학년, 전공, 학교에 따른 자기효능감

<Table 8>와 같이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M=3.35), 3학년(M=3.25), 2학년(M=3.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5).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1학년(M=3.35)이 2학년(M=3.20)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분석되었다(p<.05).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해·기관(M=3.36), 통신(M=3.31), 수산·해양(M=3.19), 식품공학(M=3.19), 냉동(M=3.1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항해·기관전공(M=3.36)이 수산·해양전공(M=3.19)과 냉동전공(M=3.18)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교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산0고등학교(M=3.39), 경남0고등학교(M=3.31), 포항0고등학교(M=3.23), 인천0고등학교(M=3.14)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부산0고등학교(M=3.39)는 인천0고등학교(M=3.14,

p<.001), 포항0고등학교(M=3.23, p<.05)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경남0고등학교(M=3.31)는 인천0고등학교(M=3.14, p<.051)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학년, 전공, 학교에 따른 사회적지지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로 1학년(M=3.49), 2학년(M=3.33), 3학년(M=3.24)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1학년(M=3.49)이 2학년(M=3.33, p<.01), 3학년(M=3.24, p<.00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ee Hyun- Hee(2008)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아지는 가운데 선생님 지지의 경우, 3학년이 2학년 보다 높은 지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진학과 취업의 진로 선택을 앞두고 진학과 취업 상담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와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 지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해·기관전공(M=3.53), 수산·해양전공(M=3.33), 냉동전공(M=3.26), 통신전공(M=3.23), 식품공학전공(M=3.22)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항해·기관전공이 냉동전공, 식품공학전공, 통신전공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산0고등학교(M=3.55), 경남0고등학교(M=3.48), 인천0고등학교(M=3.27), 포항0고등학교(M=3.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p<.0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부산0고등학교와 경남0고등학교는 인천0고등학교와 포항0고등학교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으며(p<.05), 경남0고등학교는 포항0고등학교보다 사회적지지가 높다(p<.001)고 나타났다.

<Table 8> Difference of self-efficacy on grade, major and school (N=456)

division		Self control Efficacy					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Averag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grade	1 st grade	148	3.47	.533	4.354*	1 st >2 nd **	148	3.21	.750	1.214		148	3.25	.736	1.635		148	3.35	.464	4.439*	1 st >2 nd *
	2 nd grade	216	3.29	.563			216	3.10	.697			216	3.12	.646			216	3.20	.480		
	3 rd grade	92	3.35	.645			92	3.12	.761			92	3.20	.723			92	3.25	.483		
major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133	3.27	.651	4.774**	ME>FM,FP,R**	133	3.08	.781	.566		133	3.12	.687	.828		133	3.19	.495	3.603**	ME>FM,R**
	Marine Engine	156	3.51	.531			156	3.19	.727			156	3.23	.704			156	3.36	.452		
	Food Processing	52	3.24	.465			52	3.15	.585			52	3.15	.742			52	3.19	.425		
	Refrigeration	69	3.25	.534			69	3.08	.758			69	3.13	.589			69	3.18	.474		
	Communication	46	3.40	.559			46	3.20	.683			46	3.23	.760			46	3.31	.531		
school	Gyeongnam 0 H.S	78	3.40	.569	7.958**	GH>IH*,BH>IH,PH***	78	3.22	.720	1.694		78	3.21	.707	1.610	BH>IH*	78	3.31	.433	6.427**	PH>PH*,GH>IH*,PH>IH***
	Busan 0 H.S	112	3.56	.528			112	3.19	.755			112	3.27	.684			112	3.39	.457		
	Inchen 0 H.S	137	3.23	.565			137	3.02	.743			137	3.08	.630			137	3.14	.467		
	Pohang 0 H.S	129	3.29	.584			129	3.17	.686			129	3.18	.749			129	3.23	.506		

*p<.05, **p<.01, ***p<.001

<Table 9>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on grade, major and school (N=456)

division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friend support					Averag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N	M	SD	f	Scheffe
grade	1 st grade	148	3.61	.678	2.659	1 st >3 rd *	148	3.36	.618	5.604**	1 st >2 nd ***	148	3.49	.746	8.840**	1 st ,2 nd >3 rd *	148	3.49	.516	7.168**	1 st >2 nd ,3 rd **
	2 nd grade	216	3.50	.684			216	3.13	.650			216	3.37	.663			216	3.33	.510		
	3 rd grade	92	3.41	.729			92	3.21	.659			92	3.09	.854			92	3.24	.594		
major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133	3.51	.750	4.365**	M>R,FP,C,FM*	133	3.17	.721	5.979**	M>R,FP,FM*,M>C***	133	3.32	.803	2.223	M>FP,C,F	133	3.33	.575	6.366**	M>R,FP,C,FM**,M>R,FP,C***
	Marine Engine	156	3.68	.673			156	3.41	.609			156	3.49	.728			156	3.53	.533		
	Food Processing	52	3.34	.555			52	3.10	.461			52	3.23	.617			52	3.22	.382		
	Refrigeration	69	3.33	.696			69	3.12	.601			69	3.31	.722			69	3.26	.526		
	Communication	46	3.44	.627			46	3.01	.664			46	3.23	.744			46	3.23	.474		
school	Gyeongnam 0 H.S	78	3.51	.744	3.608*	BH>IH,PH**	78	3.46	.568	12.627***	BH,GH>IH,PH*,GH,BH,IH>PH**,GH,BH>PH***	78	3.48	.743	6.980**	PH>IH,PH*,GH>IH**,PH>IH***	78	3.48	.545	10.280**	BH,GH>IH,PH**,GH>PH**
	Busan 0 H.S	112	3.70	.676			112	3.38	.615			112	3.57	.732			112	3.55	.538		
	Inchen 0 H.S	137	3.44	.677			137	3.18	.606			137	3.19	.712			137	3.27	.496		
	Pohang 0 H.S	129	3.44	.674			129	2.98	.682			129	3.27	.738			129	3.23	.518		

*p<.05, **p<.01, ***p<.001

바. 학년, 전공, 학교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Table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1학년(M=3.34), 3학년(M=3.32), 2학년(M=3.1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2학년(M=3.12)이 1학년(M=3.34, p<.001)과 3학년(M=3.32, p<.01)보다 진로 결정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Park Hyun-Ju(2005)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학년에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수·해양계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2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공과 관련한 향후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대한 준비 단계에 놓여있는 수·해양계 고등학교 2학년에게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과 진로지도, 상담 등 학교 차원의 전문적인 진로지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항해·기관전공(M=3.35),식품공학전공(M=3.31),통신전공(M=3.23),수산·해양전공(M=3.16),냉동전공(M=3.05)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항해·기관전공(M=3.35)의 경우, 수산·해양전공(M=3.16, p<.01),냉동전공(M=3.05, p<.001)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식품공학전공(M=3.30)은 냉동전공(M=3.05, p<.0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통신전공(M=3.22)의 경우, 타 전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0> Difference of career decision level on grade, major and school (N=456)

division		career decision level				
		N	M	SD	f	Scheffe
grade	1 st grade	148	3.34	.641	7.003* *	1 st ,3 rd >2 nd ** 1 st >2 nd ***
	2 nd grade	216	3.12	.550		
	3 rd grade	92	3.32	.650		
major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133	3.16	.636	3.814 **	M,FP>R* M>FM,R** M>R***
	Marine Engine	156	3.35	.657		
	Food Processing	52	3.31	.543		
	Refrigeration	69	3.05	.449		
school	Communication	46	3.23	.568	3.8741* *	BH,GH>IH* BH>IH**
	Gyeongnam○H.S	78	3.30	.660		
	Busan○H.S	112	3.35	.654		
	Inchen○H.S	137	3.10	.558		
	Pohang○H.S	129	3.23	.5714		

*p<.05, **p<.01, ***p<.001

학교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부산0고등학교(M=3.35), 경남0고등학교(M=3.30), 포항0고등학교

(M=3.23), 인천0고등학교(M=3.10)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p<.01). LSD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부산0고등학교(M=3.35)와 경남0고등학교(M=3.30)는 인천0고등학교(M=3.10)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p<.05). 반면 포항0고등학교(M=3.23)의 경우, 타 전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가.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Likert식 5점 척도에서 응답평균 3점을 기준으로 ‘이하’는 수준이 ‘낮은 집단’, ‘이상’은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11>과 같이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수준이 낮은 집단(M=2.96)이 높은 집단(M=3.3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자기효능감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Table 11> Difference of career decision level on self-efficacy level (N=456)

division	N	M	SD	t
high group	343	3.32	.606	5.762***
low group	113	2.96	.533	

***p<.001

나.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Table 12>와 같이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M=2.97)이 높은 집단(M=3.30)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생이 낮은 집단의 학생보다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Han Soo-Hyun, 2003)와 일치한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미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Lee Hyun-Hee(2008)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지지를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이 더 확고히 확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2> Career decision level on social support level (N=456)

division	N	M	SD	t
high group	363	3.30	.608	4.823***
low group	93	2.97	.545	

***p<.001

3.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3>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division	B	S.E	β	t
(constant)	1.431	.178		8.048
self control efficacy	.293	.049	.276	5.917***
confidence	.142	.038	.170	3.780***
task difficult preference	.118	.041	.134	2.852**
F=35.037***(.000)		R ² =.189		

p<.01, *p<.001

<Table 13>에 따르면,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F=35.037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18.9%(R²=.189)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변량 중 18.9%(R²=.189)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B=.293, p<.001), 자신감(B=.142, p<.001), 과제난이도 선호(B=.118,

p<.01)의 순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Table 14>에 따르면,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F=25.66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14.6%(R²=.146)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변량 중 14.6%(R²=.14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지지(B=.185, p<.001), 부모의 지지(B=.176, p<.001)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지(B=.185, p<.001)가 부모의 지지(B=.176, p<.001)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지지는 진로 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받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고, 이로써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4>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division	B	S.E	β	t
(constant)	1.783	.169		10.555
parent support	.176	.043	.201	4.062***
teacher support	.185	.047	.196	3.902***
friend support	.070	.040	.086	1.764
F=25.664***(.000)		R ² =.146		

***p<.001

다.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5>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항이 $F=26.000$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그에 대한 설명력은 $25.8\%(R^2=.258)$ 이다. 즉,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변량 중 $25.8\%(R^2=.258)$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지지($B=.169,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B=.163, p<.01$), 자신감($B=.162, p<.001$),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지지($B=.154, p<.001$),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B=.128, p<.01$)순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유형 중 친구의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교사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으로 지지를 높게 받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아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5>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constant)	.772	.200		3.858
self control efficacy	.163	.053	.154	3.080**
confidence	.162	.037	.194	4.386***
task difficult preference	.128	.040	.145	3.209**
parent support	.154	.041	.175	3.726***
teacher support	.169	.045	.180	3.719***
friend support	-.025	.039	-.031	-.645
$F=26.000^{***}(.000) R^2=.258$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수·해양계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요인인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해양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증진프로그램, 자존향상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진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시기, 전공의 특성, 학교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분위기의 측면에서 볼 때, 부산0고등학교와 경남0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인천0고등학교에 비해서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았다는 점에서 학교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학교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숙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기숙사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생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진로교사를 모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기관찰과 자기 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하여 자기조절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추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규칙적인 생활습관형성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기조절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해양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그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 교사의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전문적인 진로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학년이 높을

수록 낮아지지만, 교사의 지지는 2학년이 3학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학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피드백이 더욱 요구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2학년은 전공 선택 후 본격적으로 진로와의 연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의 지지와 함께 부모의 지지 또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여전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 지지의 경우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부모는 학생의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한 애정과 관심, 피드백 등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계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으므로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학년, 전공, 학교에 의해서만 연구되었다는 점 등이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수·해양계 고등학교 간의 차이점, 사회적 인식, 가정·환경적 상황, 지능, 성적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Bandura, A. (1986).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2, 191-215
- Chope & Robert, C. (2006). Family matters: the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 making, Austin, TX: pro-ed
- Han Soo-Hyun (2003).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Hongik National University.
- Harren, V. H.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Jang Dae-Un, etc (1996). Youth career counsel. Youth conversation Plaza.
- Kim Chung-Gi (1986). Career information resource usage and steps, *education management technique*. 190('86.9) pp.63-66.
- Koh Hyang-Ja (1993).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Lee Hyun-Hee (2008). Impa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indecision level for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Dankook National University.
- Lee Young-Sun (1999).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and trait anxiety to career indecision,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Manzi, A. J. & Glasscock, J. M.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9 No.2
-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11).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011). some amendment, Presidential decree 23314.
-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11).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11-361.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eo Jae-Phil (2011).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educatio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Statistics Korea (2011). 2010 Youth statistics, Statistics Korea.

-
- 논문접수일 : 2014년 03월 1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3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4월 02일